

선 협조 요청서> 보고 후 단과대 신입생 OT에 발제 요청하였습니다. 상대편이 OT발제의 목적을 몰랐고 발제자가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연내 뿐 아니라 생학위 자체의 중요성 설명, 조합원비 납부 요청이라고 밝혔습니다. OT발제는 새내기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이며, 출자금 납부를 위한 행사또한 진행할 것을 밝혔습니다. 상대편이 조합원의 권리를 질문하였고 발제자는 현재 생명행사에서의 상황 수렴과 장학금 수혜 가능 여부 차이가 있으며 조합원 가입을 기준으로 식비나 물건가격에 차등을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대편이 생명장학금제도에 대해 그 비용을 전체적인 물품 가격 연하에 사용하는 것을 질문하였고 이에 발제자가 그렇게 되면 여운금에 손해를 주어 생명 운영에 지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운영 준비 비용에 자유로운 금액을 장학금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어 여운금은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이과대, 문대, 상대, 공대, 교육대에서 OT 발제를 요청받았습니다. 상대편이 OT발제 이후에도 활발한 활동을 부탁하였습니다. 발제자가 생학위 활동을 통해 생명에 대한 학생들의 불안이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8. 생명학생위원회 세미나 특공비 지급 요청 발제 (첨부자료#4)

발제자가 특공비 지급 요청을 각각 다른 명목과 기준으로 3가지 만큼 준비해 발제 했습니다. 강연회를 달고 연대하여 진행한다는 점, 발제한 예산안이 현재 신청현황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후에 다시 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고 의결되었습니다.

9. 확대간부수련회 학교와의 대화 질문 작성 및 제52대 총학생회 요구안 작성 (첨부자료#5)

총학생회장님 [첨부자료#5] 2015년 제52대 총학생회 요구 결의안 (가안)을 발제하고 구체적인 내용이나 의견 및 피드백을 부탁하였습니다. 요구 결의안 카테고리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2.건축 및 공사'의 내용에 대해 '자차활동'과 관련지어 공사 투명화 정보공개와 건축 공간 구성에 학생들 의견 반영 요구, 학생 자차 공간 확보 등의 사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3.RC교육'과 관련지어 RA들의 저우와 노동권, 환경 개선 요구를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관련지어 '4.서둘버스'의 내용으로는 셔틀버스의 필요성과 셔틀버스 축소로 인해 우려되는 점들로 결정되었습니다. '7.생활관'의 내용으로는 1)학생식당 밥값 인하 요구와 생활관에 대한 학교청탁 문제제기, 2)학생들의 생활 환경과 시설 리모델링과 개선 요구로 결정되었습니다. 3)민주적 의사결정'의 내용으로 1)출입하기 의무수강 제도 폐지와 2)민주적 총학생회를 지도체자 및 학내구성원들의 권리 확보와 민주적 의사결정체의 참여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백암문서트룸과 새천년관, 공화아트룸 등의 공간에 대해 학생들의 영역을 확보하고, 학생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새로이 장애인존의 내용으로 장애학우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환경 개선, 그리고 국제캠퍼스에 건강검진센터 의사선생님 확보, 응급상황시 대응능력향상과 의료시설 및 기반 확보, 생명동선터, 성폭력 전달 상담원 확보의 내용들과 신촌캠퍼스에도 성폭력 전달 상담원, 자유전달 상담원 확보의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질문시간에 행정대부총장에게 질문할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과대편이 지난 과학관 화재와 관련하여 이후 안전 상황 점검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발언하였고 운영진이 스페이스연세를 통한 공간대관 실질적 운영방식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총학생회장이 공간구성, 재수강, 학생회비에 대하여 또 신청영관, 상경대 건물, 과학관, 백암로 함께 공간 구성에 학생참여 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간 배분에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상대편이 학교 본부가 생각하는 RC교육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 질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여정이 국제캠퍼스 정소노동자 교육습격에 대해서 질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참여정의 제안으로 요구결의안 조안 작성 후 단운위에서 피드백을 거쳐 학운위에게 피드백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1. 확대운영위원회 명단 검토 (첨부자료#6)

안전	2. 단위별 OT 및 새터 일정 수립 단과대 OT일정 수립했습니다. 2월 9일 13시, 10일 9시 30분, 11일 10시, 이과대 2월 9일 10시-17시 30분, 과학관 강당(과111), 공대 1월 30일 10시, 음악대학 2월 11일 13시-18시, 각당현, 간대 2월 9일, 10일 10시 -19시 간호대 진리관, 상경대 2월 9일 10시 30분, 12일 13시-17시, 경영대 12일 10시 30분, 각당현, 교육대 2월 9일, 11일 12시-19시, 치대 2월 1일 13시에 각 단과대 OT 진행합니다.
	건의 및 공지 사항 -총학OT진행 전 장애헤우 전수조사하여 다음회의 연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23일 새터 가는 단과대가 많아 버스 시간 조율이 필요할 것 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학간수 연등을 빨리 올리라는 의견이 있었고 공주로 합의되었습니다. -학간수 및 오프 시 숙소에서 티미널까지 차량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6일 14시로 정하였습니다.

3. 방학 중 제실 시간 (12/29-2/27)

생략

4. 삼합살이

(1) 신촌 총여실

- 이번주 목요일에 담당자분 돌아오시면 바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 국립 총여실

5. 사업 및 논의 안건

(1) 1년 사업계획 & 방학 중 사업계획

김행총괄

발제: 김행위원장 최예지

김행위원장으로 김행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체크할 수 있을지 LT에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일단 회의 때 이야기하는 내용은 논의가 필요한 것도 있지만, 굳이 논의할 필요 없이 공유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1. 단순히 공유할 사항 - 카페 게시판 활용

'업무보고 게시판'을 만들어 그 시기에 하고 있는 사업의 제목으로 글을 올리고 댓글로 진행 상황 업데이트 하는 것이 어떨까요? 말머리로 [진행중] [완료] 로 나누고, 완료된 것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 걸로 하면 혼란이 없을 것 같아요.

일주일 간 (월) 좌절 까지 올라온 업데이트를 예지가 정리해서 혜운이 안전지에 복붙한 할 수 있게 (화) 5시 전까지 개업로드 합니다. (카페에 제때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거나, 진행 상황이 모호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연락해 정보를 알아내는 일도 예지가 맡습니다. 혜운은 그저 정리된 것을 예지에게 받으면 됨!)

2. 논의가 필요한 사항 - 각 담당자가 예지(혹시 혜운에게 하는 게 나을까요?)에게 개인적으로 연락

ex) '가이드북 논의할 거 있어요.'

라고 언젠은 생각날 때 말하면 다음 회의까지 잘 메모해두고 있다가 (화) 5시 전까지 위에 보고안전과 함께 정리해서 올릴게요. 그 정리된 것을 해운이 안전지에 복붙만 하고 안전에 대한 브리핑은 회의 때 담당자가 직접 하면 좋지 않을까요?

3. 이렇게 진행하면 카페 기록을 통해 활동 아카이빙도 자연스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 온 일들(생리결석제 생리, 인권현장 연대 등)은 한편 쪽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홍보할 때나 홈페이지 콘텐츠 넣을 때에도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정책국

발제: 집행위원장 최예지

0. 개황 및 고민들

정책국은 교육사업과 문화사업을 합쳤다는 것을 기억하여 전반적으로 대중을 향해 학내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것을 큰 목표로 삼으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무엇을 교육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문화를 확산시킬 것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현재 총여학생회는 존재의 필요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필요성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존재의 의의가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학부 때까지 여성의 차별을 강렬하게 경험하지 못 하고 '여성상위시대'와 같은 페도락에 의해 '차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소수자 정치, 평등을 말하는 기구라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여성'을 그 '소수자'의 범위에 넣는 한, 이에 대한 설득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차별을 가시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주목하게 하고 외면받지 않으려면 동시에 매력적이고 힘찬 포지셔닝으로 대중과 유대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 일들로 필요성을 인지하고 매력적인 조직이 된다면 재생산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집니다.

정리하면 목표는 1) 학내 여성주의적 감수성 향상, 2) 총여학생회 재생산
그것을 위해 할 일은 1) '차별이 있다'는 사실 인지 2) 매력적이고 힘찬 이미지

저는 지금까지 이전 총여가 해오던 무난한 기획으로는 아무런 관심도 받지 못할 것 같고, 그것이 총여학생회 필요성을 더 흐리는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기구가 굳이 있어야 하나?'하는 생각을 불러오는 것이 이 시대 서울의 마지막 총여(....)가 할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결론일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명시지는 전위적이고 레디컬하더라도 형태나 이미지는 매력적이고 힘찬 수 있는 기획을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제 기획안들은 계속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반성록

(1) 가이드북 (성평등 자치 규약 &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1) 사업의도

- 학내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고 성폭력 발생을 최소화하며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
- 성폭력에 대한 교육
- 가이드북을 배포함으로써 총여학생회 홍보

2) 대상

- 주로 새내기 및 재학생 (성별 상관없이) *논의필요

3) 예상진행날짜

- 1월 3-4주에 준비 및 구성
- 2월 2-3주에 주요 배포
- 이후 총여실에 상시 비치

4) 진행방법

- 성평등 자치규약, 성폭력 예방 및 대처 가이드라인 사례 조사하기
- > 콘텐츠 구성 & 출처 확인 및 허락
- > 자료 문서화, 작성 완료
- > 편집
- > 인쇄
- > 배포 (새터)
- > 비치

5) 홍보방향

- 유용한 콘텐츠를 강조
- SNS로 총여실에 비치한다는 내용 강조
- 재미있을 것 같은 흥미유발

ex) 총여학생회가 연세인들에게 전하는 문답!

어제 같이 술 먹던 동기가 했던 기분 나쁜 말은 성희롱이었을까?

당시엔 몰라서 대처하지 못 했던 '그 사건'은 지금도 신고할 수 있을까?

만약 우리 공동체에서 성폭력이 발생했다면 난 어떻게 해야 할까?

60초 후에 총여실에서 공개됩니다. (그 슈스케 화면? 너무 지났나요??)

신하순! 빨리 와서 가져가세요! (+가이드북 사진)

남학우도 환영~

6) 협력부서나 기관

- 성평등센터
- 여성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 타 학교 총여학생회 등
- 노트 제작 업체 (스폰)

7) 전적(예산)

- 콘텐츠 분량과 합을 부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책'의 형태를 띠다면 우리의 예산에 비해 전문학적 역수, ex) 5000원x3000부 = 15,000,000
- > 스폰을 받아서 진행해야 할 것.

8) 예상되는 문제점

- 상감적, 이론적인 이야기들로 구성된다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무용지물화될 우려가 있음
- 총여학생회실에 비치하는 여분의 경우 학우들의 호응이 없을 수 있음
- 받은 뒤 읽거나 잘 보관하지 않고 버려질 수 있음. (실용성을 강화하는 달력이라거나 노트라거나 하는 기능을 추가해야 할까요?)

9) 협력가능한 담당국

- 자료집 스펠 : 재경국
- 홍보 : 미디어홍보국

(2) 상담원 확보

1) 사업의도

-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의 숫자에 비해 성평등센터의 전문상담인력이 부족한 현상을 해결
- 혹은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대한 관심환기
- 학내 성폭력 사건에 상담원이 있다는 사실 가시화

2) 대상

- 학교 대상으로 요구

3) 예상진행날짜

- 4월 1주 정기대폭위
- 11월 1~4주 HE 사례수집
- 12월 3주 HE 분반 요청

4) 진행방법

- 상황 정리 및 발전?

(도움을 주세요, 어떻게 요구해야할까요?)

5) 홍보방향

- 홍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활동보고할 기회가 있을 때 '요구했지만 실패'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되지 않을까요?

6) 협력부서나 기관

- 성평등센터

7) 전적(예산)

-

8) 예상되는 문제점

- 소문 불가
- 학우들의 냉담한 반응 (ex: 성폭력 사건이 별로 일어나지도 않고 학교는 돈 쓸데도 많은데 용여는 지 내만 생각한다)
- 발생한 사건 수를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여론 형성 불가
- > 그래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9) 협력가능한 담당자

-

2. 문화

2-1. 성평등세미나 with 다원

(1) 너와나의연결고리

1) 사업의도

- 학내 성인지 감수성 향상
- 참여 접근성 향상
- 집행부 재생산 (?)

2) 대상

- 세대기 위주로, 재학생

3) 예상진행날짜

- 1월 1~4주

(이하 생략)

(2) 성평등세미나

1) 사업의도

- 너와나의연결고리 2탄 같은 느낌으로, 학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와 참여학생의 접근성을 높이고 참여 재생산을 꿈꿉니다.

2) 대상

- 세대기 (+재학생)

3) 예상진행날짜

- 7월 4주 - 8월 3주

4) 진행방법

- ※ 이번에 했던 것을 바탕으로 시간의 여유를 두고 콘텐츠를 미리 만들고, 더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시간 선정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벼운 대화를 나누는 컨셉의 세미나 형식도 좋았던 것 같고, 끝나고 뒤돌아도 하면서 진행되는 것에도 주력합니다!

- 6월 2주 - 6월 4주 : 콘텐츠 구성 및 자료집 확정
- 7월 1주 - 7월 2주 : 홍보
- 7월 4주 - 8월 3주 : 진행

5) 홍보방향

- 대중적으로, 알랑알랑하게, 다가가기 쉽게
- 학생회나 동아리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학교 안에서 아웃사이드인 사람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온라인 홍보 주력 (SNS, YSCEC)

6) 협력부서나 기관

-

7) 권적(예산)

- 22-26만원

15명 기준

리딩인쇄 : 5,000 x 20부 = 100,000

(cf. 분량이 많으면 7,000 x 20부 = 140,000)

다과 : 30,000 x 4회 = 120,000

8) 예상되는 문제점

- 참여율 저조 (혹은 참여율 폭발)

9) 협력가능한 담당국

- 다원

- 미디어홍보국

2-2. 문화제

(1) 3월 문화제 - 여성의날

0) 개요

* 논의할 점

연애, 섹스에 집중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회의가 큼니다. 우리는 이미 과도한 연애, 섹스 달론이 과잉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그런 코드가 대중적이지만 여성의날과 밀접하게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연관을 지으려면 지을 수는 있지만.)

3월 처음으로 있는 행사라는 점에서, 총학생회의 방향성과 기조를 가장 잘 알릴 수 있는 순간일 것 같은데, '여기 성차별이 있다. 총여는 그래서 있고 꼭 필요하다.'를 말할 수 있는 기회일 것 같아서 여성의날은 취지를 살리고 연애, 섹스는 다른 기회에 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고, 세미나를 하고, 이런 날에도 계속 말랑말랑한 이야기만 하면 학우들의 입장에서 정말 총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가적인 이미지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대중성도 중요한 거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논의한 후에 진행하고 싶어요. 아래 기획들은 사례이고, 일단 방향을 잡는다면 다 재밌고 참신한 걸 공들여 생각해볼게요, 아니면 함께 생각해봐요.

* 그렇지만 논의 전에 일단 하는 기획

- 백양로에 부스를 설치하고 코너 1-3중 한 개를 진행합니다. (원래는 다하려고 했지만 힘들겠죠)

코너1. 핫소라과대회

성차별적 연행을 겪은 종이를 격파관(?)에 붙이고 격파합니다. 학우들이 이것에 참여하면 먹을 것이나 기념품을 줍니다.

(핫소리 예시 :

'너는 여자가 화장 좀 하고 다녀'

'남자새끼가 왜 그렇게 힘이 없어' 등)

예시문구를 제공하지만, 자기가 격파하고 싶은 문구를 직접 쓸 수도 있게 합니다.

(cf. 저작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두런두런에서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참고로 적어둡니다.)

코너2. 여성 인권 사진전

- 역사 속의 여성 인권 운동 현장면 혹은 현대 사회의 강연 인쇄해서 관람하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도 역사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합니다. 하려면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코너3. 캠퍼스 내 차별 찾기

- 사진에 이 기획을 홍보하고 익명으로 사례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이 아닌 선에서 전시합니다.

- 코너 4-5 중 하나를 병행합니다.

코너4. 중도에서 여성인권 관련된 영화('자이겐트스타임', '레드마리아', 등? 찾아볼게요) 상영

코너5. 성평등한 연애특강 (feat. 한국여성의전화?)

1) 사업의도

- 학내에 여성의 날의 의미를 알리고 관심을 갖게 하는 동시에 총학생회를 알리고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엮는다.

2) 대상

- 2만 연세인

3) 예상진행날짜

- 3월 8일 여성의날

4) 진행방법

- 3월 : 준비

- 3월 1주 : 홍보

- 3월 2주 (3/8) : 문화제

5) 홍보방향

- SNS로 먹을 것 혹은 기념품을 부각시켜서 행사하는 장소에 들을 수 있게 유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 여성의날의 의미도 함께 홍보하면 좋겠어요.

6) 협력부서나 기관

-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 (영화 상영을 한다면)

- 여성 단체 (특강을 한다면)

7) 권적(예산)

- 미정

(필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 같고, 필할지 기획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일단 해봐야 할 것 같아요 000)

8) 예상되는 문제점

- 학우들의 무반응

- Staff 부족 (그렇다고 기획단을 모집하기엔 그 관리의 일이 더 커질 거 같음)

9) 협력가능한 담당국

- 미디어홍보국
- 재정국
- 국제캠퍼스국

※ 국령도 함께 진행합니다.

(2) 9월 문화제

0) 개요

기획단을 모집하여 진행하고, 이들이 흥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획 위주로 만들고 서로 전해줄 수 있게 합니다. 문화제 기간으로 대대적으로 영화제도 진행하고 특강도 진행하고 백양로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공연, 전시도 진행하여 연세 페미니즘 축제 기간(?)을 정립합니다. (이름은 페미니즘이 아니어도...) 연세, 렉스 컨셉을 이 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 백양로에서 보이는 라디오처럼 팟캐스트 진행, 공연 (페미니스트 가수 지현, 이반지하, 유전디 등), 부스 (대안생리대 만들기, 생리주기팔찌 만들기, 음표 판매 등)

1) 사업의도

- 학내 여성주의적 감수성 제고
- 참여 재생산
- 학내 여성주의자 및 관심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 형성

2) 대상

- 기획단 및 연세인들

3) 예상진행날짜

- 9월 1-2주

4) 진행방법

- 6월 3-4주 : 기획단 모집
- 7월 1-2주 : 기획단 세미나
- 7월 4주 - 8월 3주 : 구체적인 기획 및 준비
- 8월 4주 : 홍보

5) 홍보방향

- 기획단 : 방향 때 참여할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 사람들 모집
- 전체 학우 : 특목되는 재미있을 것 같은 행사, 잠시 둘러서 놀다가 갈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부각

6) 협력부서나 기관

7) 전적(예산)

8) 예상되는 문제점

9) 협력가능한 담당국

- 재정국

- 미디어홍보국

4. 차별 없는 캠퍼스

(1) 저상버스 요구

1) 사업의도

- 장애학우의 이동권 개선, 공약 이행
- 총학생회의 오직 '여학우'를 위한 것이 아닌 '소수자 정치' 기초 부각

2) 대상

- 학교 본부

3) 예상진행날짜

- 2학기

4) 진행방법

- 학교에 요구안 제출
- 총학과 연계

5) 홍보방향

- 나중에 활동보고 형식으로만 이야기하면 될 것.

6) 협력부서나 기관

- 총학생회

7) 전적(예산)

-

8) 예상되는 문제점

- 요구안 독살

9) 협력가능한 담당국

- 회장단

(2) 성소수자

- 우리가 너무 하는 게 많아서 문화제를 또 해기보다는 연대사업으로 충분한 것 같아요.
- (퀴어문화축제 부스참여, LGBT인권포럼)

생활복지국 사업기획단

발제: 생활복지국장 이지영

사업명	여학생휴게실 정비		
담당국	생활복지국	협력국	
학내 관계부서	학생복지처		
진행날짜	겨울방학중		
사업의도	여학생 휴게실의 경비 및 이용의 편리화		
대상	여학생 휴게실 이용자		
홍보방향			
진행내용	여학생 휴게실 목록화 부족한 비품 구입 및 배치 (담요, 멀티탭, 가능하면 이불)		
예산	담요 : 4,000원 * 2개 * 10실 = 80,000원 멀티탭 : 8,000원 * 1실 * 10실 = 80,000원 여성주의 관련 서적(잡지) 배치		
예산문제점			

사업명	자궁경부암 백신사업		
담당국	생활복지국	협력국	
학내 관계부서			
진행날짜			
사업의도			
대상			
홍보방향			
진행내용			
예산			
예산문제점			

사업명	취업특강		
담당국	생활복지국	협력국	
학내 관계부서	학생복지처 장학취업팀		
진행날짜	학기중 3월, 5월, 9월 (시험기간 피해서)		
사업의도	여학생들의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기존의 대기업 위주의 취업보다 새로운 직종이나 여성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기업 등을 소개한다.		
대상	여학우 전체		
홍보방향			
진행내용	-컨텐츠 선정(직종이나 적절한 여성 멘토 선정) -강사섭외 -공간 대여 -홍보 -진행		
예산	강사 섭외 비용 (학생복지처 지원 가능한지 알아보기)		
예산문제점			

사업명	문화티켓(여성인권영화제, 환경영화제 등)		
담당국	생활복지국	협력국	
학내 관계부서			
진행날짜	학기 중 계속-		
사업의도	학우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대안 문화들 소개하고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대상	전체학우		
홍보방향			
진행내용	-여성영화제, 환경영화제, 연극(편찮은 것 골라서) 리스트화 -주관기관 또는 업체 연락/계휴 계약 -티켓 구입 -홍보		
예산	티켓 구입비용		
예산문제점			

사업명	채식식단 요구		
담당국	생활복지국	협력국	
학내 관계부서	생활협동조합		
진행날짜	학기 중 계속-		
사업의도	학식은 주로 육류 기껏해야 해산물로 이루어진 식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내에는 종교적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학식에 채식 식단을 보충해서 이들도 식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대상			
홍보방향			
진행내용	-		
예산			
예산문제점			

사업명	여성주의 자기방어 훈련		
담당국	생활복지국	협력국	정책국
학내 관계부서	성평등센터		
진행날짜			
사업의도	기술적 측면 이외에도 우리의 몸에 내재해있는 폭력에 대한 공포, 위축, 방어적 표현, 불안감 등을 몸과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며 해소하는 '치유'의 과정을 포함한다. 나아가 평소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상황, 공포감, 피해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제공한다.		
대상	전체 학우		
홍보방향			
진행내용	방법 1 - 세미나형식의 강의와 몇 회의 호신술 교육 - 세미나 내용 구성/강사섭외(세미나호신술)/실무진행 방법 2 - 교양체육과목의 여학생 분반 신설 요구 방법 3 - 학내 여자 운동 소모임 조직 및 소모임 지원		
예산	방법1 - 강사섭외 비용 방법 2 - 소모임 지원 비용(운동 도구 등)		
예산문제점			

국제캠퍼스국 2015년 사업계획서

작성자: 국제캠퍼스국장 정운

0. 국 제제 소개

국장: 정운

업무: 총여학생회 사업 중 국제캠퍼스 관련 사업을 일차적으로 담당합니다.

국제캠퍼스 내 구성원-재생산 문제를 고민합니다.

1. 요리로 배우는 자립·자활 프로그램 (가안)

(1) 문구 예시

'밥은 먹고 다니니?'

'을-애기- 킥하면 말고 유기농 어린이 파스타 먹을래?'

'언제까지 학식하고 밥버거만 먹고 살려니?'

'재식주의자들- 다 여기로 드루와-드루와-'

'을 애기- 언니들이랑 요리 배워볼래?' (건호 배제...)

'요리사 (X)가 간다!'

(2) 사업 의도

국제캠퍼스 생활 중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잘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캠퍼스 내의 식생활은 학식 혹은 밥버거, 갈레 퓌아 라온생의 파스타나 그라탕 정도로 제한되어있습니다. 시내에 나가 식사를 할 수 있는 신촌캠퍼스와 다르게, 국제캠퍼스는 버스 타고 최소 30분은 나가야 시내에서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는 다른 기회가 없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의 목적은 국제캠퍼스 내 신입 생활의 식생활 습관이 단조롭고 영양불충분한 상태로 지속되는 것을 예방하고, 간단한 요리를 배움으로써 스스로 자립·자활한다는 것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총여학생회 구성원-재생산

(3) 예상 진행날짜 및 진행 장소

2015년 1학기, 국제캠퍼스 셀프키친에서

(4) 대상

2015년 국제캠퍼스 내 신입생

(5) 사업 진행방식

- 2주에 한 번씩 국제캠퍼스 방문(3월-5월 2번, 4월-6월 1번)
- 8-12명 정도 선착순으로 끊어서 받기, 면접 진행.
- 의미 있는 농산물 사용 ex) 말양 농산물, 국제여성영화제 글 등
- 각 모임마다 진행하기 위한 생활 나눔 및 세미나 진행
- 모임 중 한 번은 국제캠퍼스 여성청소노동자 분들을 초대해서 '연대'+'자립'의 의미로 프로그램 진행
- 매번 프로그램 진행 후 음식 사진과 이야기한 내용(간단하게) 페이스북 업로드
-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모두가 함께 먹을 수 있는 요리를 만들어 부스를 세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식행사 비슷하게 나눠주는 것도? 재능 활용, 재능 기부의 느낌으로.
- 1학기 교정멤버들이 2학기 때 국제캠퍼스에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면? (은 안 대고 코 풀기?)
- 3월 8일 여성의 날 문화제 이후에 시작

(6) 준비해야 할 것

- 홍보 자료들 (플람, 포스터)
- 커리큘럼 (어떤 요리를 할지-해당 요리의 의미나 자립·자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생활 나눔이나 세미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 식재료 (인원 동춘역에서 구입) / 요리도구, 식기
- (요리 솜씨가 있는) 회장단 혹은 집행부원(...)
- 총여학생회에 관심이 많은 RA (심산하 씨?)

(7) 홍보 진행방식

- 페이스북 업로드
- 플람, 기숙사 내 엘리베이터에 포스터 부착
- 새터 때 홍보?

(8) 담당 국 및 협력 국·기관

국제캠퍼스국 / 정책국, 미디어홍보국, (외부) 농산물 지원 기관

(9) 예산

- 식재료, 요리도구, 식기 구매 비용

(10)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한계

- 총학생회 간식 사업과 똑같이 보이지 않도록 '자립' '자활' '세미나' '지속성' '연속성' 등으로 차별화시

키는 전략이 필요함.

- '밥 주는' 총여학생회의 이미지가 굳어지지 않도록 프로그램 성격을 잘 다듬어야 함.
- 프로그램의 목적 중 하나가 구상된 재생산이므로 그 목적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 프로그램 커리큘럼과 방향을 명확하게 잡는 것도 중요

(11) 광고할만한 모델

- 해저센터 '소풍 가는 고양이' (facebook.com/sogo5090), 홍대 슬로비
- : 이 곳에서 활동하는 분을 초청해서 '요리'의 의미나 '공동체' '자립' '자활' '함께 살아감'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한영미 오가니제이션요리 공동대표는 "카페 슬로비는 도시에서 느리게 산다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천천히 더 나은 삶을 함께 살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라며 "서로 의지해 살기,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기, 끼니를 거르지 않기, 요리해준 사람에게 감사하기 등 아주 사소한 수도 있지만 삶의 기본들을 기억하고 실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2. 시행 기간 긴장한, 의미 있는 간식 뿌리기

(1) 문구 예시

'총여가-재실장이랑 바타루카-들고-간다'

(2) 사업 의도

총여학생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3) 예상 진행날짜 및 진행 장소

2015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전에 국제캠퍼스에서

(4) 대상

2015년 국제캠퍼스 신입생

(5) 사업 진행방식

- 시행 기간 전에 1기숙사와 2기숙사에서 간식 뿌리기
- 간식 행사 전에 SNS를 통한 홍보가 선행되어야 함
- 간식 나눠주는 거에 간단한 목적을 담아 간식의 의미를 홍보. 가령 여성영화제에서 받은 글을 나눠줄 때 지퍼백에 글을 담고 지퍼백 겉에 종이를 붙여서 '이 간식은 어마어마한 활동을 하는 여성영화제에서 나눠준 글입니다' 어쨌든 한 두 문장으로 의미를 간단히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할 듯.

(6) 준비해야 할 것

(7) 홍보 진행방식

(8) 담당 국 및 협력 국·기관

국제캠퍼스 국, 생활복지국 / 정책국, 미디어홍보국

(9) 예산

간식 구입 비용

(10)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한계

3. 국제캠퍼스 내 상담원 확충 요구

(1) 사업 의도

우선, 선본 시절에 내세웠던 국제캠퍼스 공약 중 하나를 실천하는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소외되기 쉬운 국제캠퍼스 내 성폭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캠퍼스 내에서 상주하는 상담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예상 진행 날짜, 사업 진행 방식

- 4월 대학위원회 정기 모임에서 요구
- 신촌캠퍼스 생활동선터에서도 전문 상담원 확충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요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무척 낮음. 그러므로 국제캠퍼스 내 상담센터가 성폭력 상담 문제를 겸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음.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기숙사 내 화장실에 '성폭력 문제로 고민하고 있나요? 총여 or 다음과 같은 곳으로 연락하세요' 스티커라도 붙여야...

(3) 담당 국 및 협력 국·기관

- 국제캠퍼스 국 / 회장단

4. 국제캠퍼스 내 문화 사업 (3월, 5월, 9월)

(1) 사업 의도

- 신촌캠퍼스와 함께 국제캠퍼스도 문화제를 진행하여 총여학생회를 홍보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

(2) 예상 진행 날짜, 사업 진행 방식

- 일단 신촌캠퍼스에서 진행하는 문화제의 컨셉트는 같게 하되, 세 내기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조금 바뀌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음.
- 3월: 여성의 날 행사
- 5월: 국제캠퍼스 내 대동제 모니터링?
- 9월: 문화제

(3) 담당 국 및 협력 국·기관

국제캠퍼스 국 / 정책국

5. 소풍 - 총여학생회실 정비 및 홍보

(1) 사업 의도

일제만 느껴지는 총여학생회실을 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 국제캠퍼스 내 총여학생회실을 정비

(2) 예상 진행 날짜, 사업 진행 방식

- 재실은 힘들지만 뭔가 총여학생회실이 있다는 존재감을 어필할만한 방법을 찾는 것. 무인 발급기? 아니면 혹은 국제캠퍼스 내에서 소규모 여성주의 학회나 다른 학회들이 세미나할 때 공간 대여? (너무 좁으려나...) 아니면 총여실 앞에 성폭력 예방 가이드북 배부대 배치, 성평등 자치 규약 같은 걸 벽에 붙인다거나...
- RC 교육원에서 국제캠퍼스 총여학생회실 위치 묻는 데일 있음. 옛 머정 그...

(3) 담당 국 및 협력 국·기관

국제캠퍼스 국

6. RA 대상 성인지 교육 확충 요청

(1) 사업 의도

성인지 교육 확대 공약 중 국제캠퍼스 RA를 대상으로 한 성인지 교육을 확충함으로써 국제캠퍼스 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

(2) 예상 진행 날짜, 사업 진행 방식

- 1월 말, 2월 초에 RC 교육원과 컨택, 요청사항 전달.
- 교육의 시간이나 횟수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하거나 교육의 내용에 용어가 개입? 이런 좀 무리일까요. 아무튼 'RA'를 대상으로 한 적합한 성인지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 요청을 한 후, 2015년 1학기 때 성인지 교육을 받은 RA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2학기 때 다시 요청?

(3) 담당 국 및 협력 국·기관 국제캠퍼스 국

(2) 생리대

전화가 학생자 전화해서 여학우 숫자 문의해보기로.

(3) LGBT 인권포럼 기획 제안 [첨부자료]

안녕하세요, 시우예요.
제안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태운도 잘 알고 있겠지만, 무지개행동에서는 매년마다 LGBT 인권포럼을 개최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2월 14일-15일에 서강대에서 진행했구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권포럼의 규모를 조금 더 키우고 포맷을 바꾸어서 연대에서 개최를 하면 어떨까 하고 문화학과에 제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총회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최로 참여하기로 결정되었어요. 행사 프로그램이나 인원 협의, 홍보와 같은 실무는 전부 무지개행동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문화학과 차원에서는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과 차원에서는 아카데미에 품 담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포럼을 소개하고 좋은 연구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찾아보는 연구를 할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은 제가 맡기로 되었는데, 저는 몇몇 학부 단위들과 같이 연계해서 편을 벌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캠퍼스에서 LGBT 이슈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침에 연대단위를 확실하게 정해서 같이 행동하게 될 때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고요. 계획과 차원에서 학부생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그래서 혹시 총여에서는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어보려고 전화 드린 거였어요. 일단 다른 단위에는 어디에도 제안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실무적으로는 공간을 대여해주는 일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요. 아시다시피 저희 과가 워낙 작은 데다가 협동과정이다보니, 강의실 자체를 빌리는 게 수월하지 않아서요. 만약에 총여가 주최 단위도 참여하게 되면 강의실을 총여 이름으로 빌리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리게 되었어요. 이런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아쉽지만 어쩔 수 없겠고요 :)

일단 무지개행동 측에서 저희 과에 보낸 제안서가 있어서 태운에게도 보내드릴게요. 확인해주시고 결정

된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첨부된 파일에 덧붙이자면,

(1) 날짜는 3월 21일-22일(토-일)로 결정되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에 외국에 가는 일정이 생겨서 정작 저는 참여가 어려울...

(2) 필요한 공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형강의실(계단식 150명-200명) 2개
중형강의실(100명) 3개
강의실 설비 : 빔, 마이크(최소 1개)

가급적 정원에서 카펫과 돛이 쉬우며, 강의실 풍선이 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복도에 간이 부스(책상-의자, 15명 정도)를 설치할 수 있는 곳이면 좋겠다고 해요. 단체 홍보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방학에도 사업 진행하시느라 바쁘실텐데 3월에 외부 사업을 제안하게 되었네요. 집행부원과 같이 상의해 보시고 연락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일은 아니지만 장소를 구하는 일은 빠르면 빠를수록 진행하는 데 수월할 것 같다고 하시네요. 장소 대여와 같은 실제적인 일은 조금 비루어지더라도, 참여여부는 이번주 내로 알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답장 기다리고 있을게요.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세요 :)

감사합니다. 시우 드림.

(4) 너와 나의 연결고리

내일 3주차 세미나 '성폭력'이 진행됩니다 ~_~
참가자들에게 전부 문자 보냈습니다.

(5)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대처 가이드북

(6) 새내기 맞이 기획단

1월 17일 회의 때 피드백 전달했습니다. 피드백이 반영되었습니다. B.S(불살) 빼고,
그리고 오늘 정모에서는 성인지교육 실시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정모 성인지교육 내용을 게재합니다.

총여학생회의 새내기 맞이 정모 성인지 교육이 1월 6일과 20일, 두 번에 걸쳐 실시되었습니다. 여학생과 남학생이 솔자리에서 접할 수 있는 성차별적 언행, 성폭력과 2차 가해의 사례를 살펴보고 더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성장과 노력이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성인지교육의 중요성 부연--

15학번 새내기들, 남학우 여학우 성소수자학우 장애학우 술 끝마시는 학우 술 못마시는 학우 안 마시는 학우 다 환영한다---

[사진]

새내기 정모 문제의 영상 - 문화연구전 영상

연대와 고대 송동원 주위로 제작한 문화연구전 영상, 합합과 합에서는 비속어와 '강간한다', '파먹는다' 이런 성적인 욕설들로 어떤 전복적인 효과/반대편 디스를 하는 것을 매우 클래식하고 오래된 전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합합후들이 성할 것이 가사를 쓴 거 같네요. 근대 합합의 역사는 역사고 성폭력은 성폭력이지요 ^ ^ 모든 사람들이 합합의 어떤 물리체들을 알고 있는 것도 아닌데, 합합질은 내부에서만 했어야 했고, 더군다나 문화연구전이라는 공식선상에서 '범'(호랑이)하네 '강간하네'라는 걸 뽐내지 못했습니다. 문제 제기하고 앞으로 새내기 오타에서 동영상 할 거라는 작업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7) L사건 성폭력 대책회

1) 성폭력상담소를 통하는 쪽으로

2) 요구안 내용은 그때 얘기했던 것을 감안하여 수정하는 쪽으로

상담소는 2월에 갈 것 같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얘기한다고 합니다.

(8) 2015년 제52대 총학생회 요구 결의안 (가안)

*읽어보고 피드백합니다.

발신 : 연세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수신 : 연세대학교 총장

학생은 연세대학교의 소중한 구성원으로서 그들을 대표하는 총학생회는 연세대학교가 선진적인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왔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의 연세대학교는 등록금, 주거문제, 취업문제 등 합쳐놓는 대학생의 현실, 수익과 효율성만을 교육 정책의 기초로 내세우고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앞세운 학교 당국의 독단으로 가득 차있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교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세대학교 총장에게 연세대의 삶과 교육권을 개선하여 연세대학교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1. 학교 본부는 교육 제정에 있어서 학생들의 등록금 의존율을 반드시 낮추고 명목등록금과 실질등록금 부담을 줄여 학생 모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2. 기존의 재수강 3회 제한 제도는 교육의 목적을 호도하고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학생들이 학점경쟁에 불만해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실시하라.

3. 백양로 재강조 프로젝트, 신경영관, 제1공학관 증축, 과학관 증축 등으로 학교의 공간이 줄어들었다. 학교 본부는 공간 구성에 있어서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회의체를 조속히 마련하라.

4. 총장선출에 민주적으로 학생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총장추천위원회, 총장인준투표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권을 보장하라

5. 학교본부는 학생들이 학교 전체의 의사결정에 다른 구성원과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 운영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6. 학교본부는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 자치활동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

- 신축 공간에서 학생들의 학생회, 동아리, 학회 활동 등의 자치활동이 장려될 수 있도록 타임 헤어링 방식이 아닌 자치단체가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라

- 백양로서트룸, 금호아트홀(건설예정), 각 단과대의 강의실 등의 공간을 외부단체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보장하라

7. 학교본부는 학생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정원 기숙사를 비롯하여 앞으로 신축될 기숙사의 기숙사비의 산정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기숙사비를 기존의 무악학사 기준으로 낮춰라

8. 학교 안에는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 졸업을 유예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 학적 상의 졸업학기의무수 강제 때문에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반드시 등록금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학교 본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

9. 학교 안의 학생식당의 목표는 이윤 창출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에서 부담없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학교 본부는 연세대학교 신촌, 국제캠퍼스 안 학생식당의 밥값을 인하하여 학생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라

10. 국제캠퍼스는 부족한 기반 시설, 불안정한 RC교육, 신촌캠퍼스와의 거리 등의 문제로 학생들이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학교본부는 국제캠퍼스의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하라

-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학생간 교류와 자치활동을 장려하고 송도의 부족한 교육 인프라를 보완할 수 있도록 신촌-국제 캠퍼스 셔틀버스를 확충하라.

- 국제캠퍼스에서 발생해왔던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 성평등센터를 정상화하고 성폭력전문상담원을 확충하라

- RC 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RA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RC 운영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

11. 학교 본부는 학내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여 발전할 수 있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캠퍼스를 보장하라.

- 신촌-국제 캠퍼스의 건물 도로 등에 있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고 장애인도 신촌-국제 캠퍼스 사이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라

- 학교 본부는 교수, 교직원, 노동자, 학생 등 모든 구성원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캠퍼스를 구상하라

(9) 학교 본부와의 대화 결론

3. 국제캠퍼스에 성평등센터 설치와 성폭력 전문 상담소 설치 및 상담원 인력 확충을 요구합니다.

본부는 One-Campus를 주장하면서 성평등센터를 신촌캠퍼스에 하나만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촌캠퍼스의 성평등센터는 신촌캠퍼스의 업무만으로도 과중한 형편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인건비에서 인권·성폭력 상담을 모두 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장인 교수를 제외하고 4명의 직원(행정 2명·연구 전문위원 1명·교육 1명)과 4명의 상담원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대학교 성평등센터의 경우에는 센터 소장을 제외하고 2명의 교직원과 1명의 상담원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대학교 성평등센터는 신촌캠퍼스에 있어 사실상 국제캠퍼스의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인지하거나 국제캠퍼스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한 명의 성평등(성폭력) 전문 상담원을 신촌과 송도에 번갈아 출퇴근시킬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캠퍼스의 상담원 부재를 매꾸기 위해서 신촌캠퍼스와 국제캠퍼스를 번갈아 오가도록 하는 것은 상담원에게 지나치게 과중한 업무를 줄으로써 연속성을 해치고 전문성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더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성평등센터나 성폭력 전문 상담원이 국제캠퍼스에 없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성평등센터 설치 및 성폭력 전문 상담원 배치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학교 본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 그 외 안전 및 편의사항

[첨부자료] [2015 겨울 강연회] <내멋대로 상상하는 발칙한 우리>

연세대 생활위와 같이 함께하느 겨울 강연회 라인업이 왔습니다!

전문가와 활동가에게 직접 듣는
삶과 사회를 향한 대학생의 발칙한 상상의 시간

겨울방학의 절반이 가고 있는 지금,
강연회 듣고 같이 공부해요!~

* 강연 안내:

PART1. 인권으로 보는 사회

[인권의 역사] : 인권의 의미를 재조명하다

- 인권 활동가
- 1/19(월) 14-18시

[공공성의 기준] : 인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잡다

- 인권 활동가
- 1/21(수) 14-18시

PART2. 우리가 몰랐던 성

[젠더정체성] : 젠더정체성의 형성과 세슈얼리티의 발현을 보다

- 여성학자 김신현경
- 1/26(월) 14-18시

[성권력과 진보] : 우리 사회 속 성권력 구조와 진보적 상상

- 『여성학』 공동저자 이박혜경
- 1/28(수) 14-18시

PART3. 잘 사는 사회적 경제

[주류경제학에 대한 논증적 비판] : 경쟁 없는 경제를 상상하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2/2(월) 14-18시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경제] : 사회적 경제의 생생한 현장담

- 주택협동조합 활동가 권지윤 / 생활협동조합 활동가 이한솔
- 2/4(수) 14-18시

* 신청방법: <http://goo.gl/forms/b1PF3MpvYg>

* 강연비: 10000 / 16000 / 20000원 (수강 주제별/자료집비 포함)

* 문의: 010.2886.2084

[첨부자료] 확대간부수련회 일정

날짜/시간	22일(목요일)	23일(금요일)	24일(토요일)
9:00~10:00		아침식사	
10:00~11:00		안전 교육	청소
11:00~12:00			출발
12:00~13:00	물품도착 (12시 30분)	휴식	이동 및 도착
13:00~14:00	버스탑승	점심식사	
14:00~15:00	이동 및 도착	확대운영위원회	
15:00~16:00			
16:00~17:00			
17:00~18:00	학교 본부와의 대화		
18:00~19:00	저녁식사		
19:00~20:00	성인지 교육	생협 조합원 교육	
20:00~21:00			
21:00~22:00	휴식시간	레크레이션	
22:00~23:00			
23:00~24:00	뒤돌이(~4시)	뒤돌이	

작성자: 이정민

2015년 1월 19일

미디어홍보국 전반 소개

구성원: 손미래, 이정민, 임진호, 손정윤

현재 총학생회는 학우들의 인식도나 관심이 다른 학생회 지지기구에 비해 낮고, 존재론의 위기가 대두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미디어홍보국에서는 총학생회에서 맡아는 각종 사업과 필요성을 학우들에게 알려서 총여의 인식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합니다. 더 나아가,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제고함으로써 총여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넓게 형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정책국과 협력하여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세우고, 국제캠퍼스국과 협력하여 신입생들에게도 그 의도가 충분히 전달되도록 합니다. 주된 임무는, 기존의 부정적인 편견을 벗을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구체화하고, 디자인 방향을 기획하여, 마케팅 이벤트를 감구하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 매체를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포스터나 플랜 카드, 피라사, 스티커 등의 인쇄 제작을 총괄합니다. 총여학생회로 들어오는 각종 연락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는 대외협력 업무도 함께 겸합니다.

정리하면,

1. 기획
 1. 부정적인 편견을 벗을 수 있는 친근한 이미지를 구체화합니다.
 2. 디자인 방향을 기획합니다. (로그 및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관리합니다.)
 3. 마케팅 이벤트를 기획합니다.
2. 콘텐츠 제작 (정책국과 협력)
 1. 총여학생회의 사업을 알리고 보고합니다. (via SNS메카나 홈페이지)
 2. 각 사업별로 홍보가 필요한 업무를 담당합니다.
 3. 여성주의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제작합니다.
3. SNS(페이스북, 트위터)와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
 1. 알의 2번과 연계하여 콘텐츠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합니다.
 2. SNS로 오는 연락을 일차적으로 담당하여, 문의 댓글에 답변을 달니다.

SNS(페이스북, 트위터) 관리

전반적인 목표

학우들이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SNS라는 매체를 활용하여 총여학생회의 활동 내역과 각종 사업을 효과적으로 홍보합니다. 특히 정보 전달이 추가 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다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주의적 감수성과 공감대를 넓히고, 총여학생회를 친근하며 신뢰감 높은 이미지로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외적으로는 팔로워 숫자가 많고, '좋아요'나 '댓글', '리트윗'이 활발히 일어나는 공간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목표 수치는 3월 말까지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 2천 개, 트위터 팔로워 5백 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좋아요 이벤트' 등과 같은 홍보 방안을 구상하고, '좋아요'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콘텐츠의 특성을 분석하여 주기적으로 포스트합니다. 답변은 24시간 이내로 처리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도록 합니다.

현재 상황

페이스북 좋아요 354개 / 친구 581명
트위터 팔로워 1153명 / 팔로워 229명

페이지 좋아요는 페이지 통합을 공지했던 1월 8일에 가장 많았고, 이후로는 하루 10명 내외로 꾸준히 좋아요가 증가하고 있다. 좋아요의 수보다 페이스북 계정 친구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보아 홍보가 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의 각 게시물별 좋아요 순위

언더우드콘 알 상황 42 (그린 포스팅 18) / 세미나 모집 37 (카드예 21) / 생리경식계 관련 합의 보고 19 / 집행부원 모집 18 / 세미나 후기 18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같은 내용을 두 번 올렸을 때 한 쪽에 좋아요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올린 시간대가 언제인가에 따라, 그리고 내용이나 이미지의 흥미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예상된다.

<SNS 관리>

1) 예상진행날짜

- 1월 4주차까지 양식(컨텐츠, 답변)을 확정하고 담당자를 정한다.
- 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업무가 배분되어 돌아가도록 한다.

2) 구체적인 업무

1. 매주(혹은 격주)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계획과 결과를 보고한다.
 1. 콘텐츠 양식을 만든다.
 2. 매주 회의가 끝나면, 그 결과를 a파일로 만들어진 폼에 정리하여 수요일 자정까지 업로드한다.
 3. 담당자: 페이스북() 트위터()
2. 중요한 이벤트를 알리기나 보고한다
 1. 각종 모임이나 사건에서 사진과 동영상 찍는다.
 2. 해당 사건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업로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담당자: 사진 담당자() 페이스북() 트위터()
3. 연락 및 메시지를 관리한다.
 1. 답장 양식을 만든다.
 2. 담당자는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상주하여 30분 간격으로 체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메시지는 일차적으로 카톡방에 공유한다.
 4. 댓글은 3시간 이내로 답장한다. 가능하면 주말에도 빠른 답변이 가능하도록 각 구성원이 주시한다.
 5. 페이스북 메시지는 24시간 이내에 답장한다. 금요일에 도착한 메시지는 필요일 자정 전까지 답장한다.
 6. 담당자: 페이스북() 트위터()

3) 예상되는 문제점

SNS업무의 핵심은 재빠르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 학업 등의 일과 병행하다 보면 페이스북을 매일 주시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누가 포스팅을 담당해야 하는지, 답장을 해야 하는지 모호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담당자를 확실하게 정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

<'좋아요' 이벤트>

1) 개요

초반에 많은 홍보가 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사업은 2-3월에 집중될 것이다. 구체적 목표로 3월 말까지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 2천 개, 트위터 팔로워 5백 명을 달성할 것이다. 이후에도 일정 추가로 꾸준히 이벤트를 진행해서 홍보 효과가 지속되도록 한다.

2) 예상 진행 날짜

- 1월 말까지 이벤트를 구체화하여 2월에 홍보 한 차례 진행
- 신입생이 들어오는 2월말-3월초에 맞추어 홍보 진행
- 3월 둘째주에 중간 점검을 하고 이벤트 추가 진행

3) 진행 방안

- 3-5천원 상당의 상품을 확보한다.
- 이벤트를 홍보한다.
- 홈페이지에서 알리는 모든 콘텐츠에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를 첨부하고 좋아요를 유도한다.
- 새내기들 맞이하는 장소(오리엔테이션, 새터)에서 페이스북의 존재를 알리고, 이벤트가 있다면 언급한다.

4) 예상되는 문제점

목표로 잡은 수치가 턱없이 높을 수 있다. 학생들의 호응이 생각 외로 높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처음부터 좋아요가 별로 없고, 학우들의 관심도 낮은 상황에서 온라인상으로만 홍보를 진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 참고

페이스북 마케팅 <http://blog.naver.com/ingggg/20194659353> 참조

디자인 기획

전반적인 목표

기존의 부정적인 편견을 벗고 학우들에게 친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디자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이다.

로고 및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확정하고 정리한다.

페이스북/트위터의 프로필사진/배너사진을 관리한다. (-2월 1,2주까지 완료)

포스터/파라시/물감카드의 Form을 설정하여 디자인을 허가, 외부 디자이너와 연계하여 관리한다. (2월 말까지)

그 외 디자인을 담당하거나, 외부 디자이너와 연계하여 관리한다.

여성주의 감수성 알리기

1) 개요

총학생회의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 총학생회의 필요성을 널리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여성주의 공감대를 넓히고자 하는 사업(가이드북 등)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2) 예상진행날짜

- 2월 3-4주에 콘텐츠를 선정하고 콘텐츠 가공 방법을 기획한다
- 4월 3주차부터는 휴식 기간을 가진다. 콘텐츠를 다시 재정비하여 5월 1주차부터 재개한다.

3) 진행방법

1. 콘텐츠 기획
이해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난이도와 분량의 콘텐츠를 정한다
2. 콘텐츠를 확정한다.
여성주의 입문 책에서 선정한 글귀 / 가이드북 내용 요약 / 상인지교목 내용 요약 / 기타 어떤 것?
3. 콘텐츠 가공 방법을 논의한다.
멘토를 활용한다 / 팸플릿을 활용한다 / 캐리커를 활용한다 / 사업보고서 Form을 만들어두어 효율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4. 홍보한다.
이론 중심으로 제출한다 / 퀴즈를 낸다 / 기념일이나 미디어의 일과 관련한 시사성 있는 콘텐츠를 올린다 / 이벤트를 활용한다(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선물 제공)

4) 예상되는 문제점

사람들의 반응이 미진할 수 있다. 이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하려면 페이스북 페이지의 좋아요 수가 많아야 한다. 내용이 단편적으로 올라갈 경우, 자칫 여성주의에 대한 오해를 더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내용이 너무 방대하거나 너무하면 잘 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중간에서 적절히 콘텐츠를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자질이 될 것이다.

2015 제7회 LGBT 인권포럼 협력 요청서

발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담당:정현희 hwacore@nongae.org, 010.3167.5572)

수신: 연세대학교 대학원 문화학협동과정

안녕하세요, 귀 학과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올해 3월, 제7회 LGBT인권포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연중 1회 양일 간 진행되는 이 포럼은 활동-연구-커뮤니티를 잇는 LGBT 인권운동의 공론장입니다.

연세대학교 문화학협동과정은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연구와 함께, 퀴어연구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학제이자 연구자들의 지식공동체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러 교수님을 포함한 학생연구자들 역시 이러한 인권운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심스럽게 아래와 같은 요청을 드립니다.

그동안 LGBT인권포럼은 서울 소재 대학 총학생회 및 대학 내 성소수자모임과의 공동주최를 통해 대학 내에서 인권포럼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학행정은 점차 학생자치단위에서 학내 공간을 사용하는 데 제한을 두거나 엄격한 관리 방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학생자치단위가 성소수자 관련 행사를 주최할 때, 이러한 움직임에 반대하는 이들이 민원을 제기할 시 대학 당국은 손쉽게 대관을 취소하는 일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관 취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퀴어문화축제나 인권법정책 영역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성소수자 운동이 마주하고 있는 반격이자 현실입니다.

2014년 12월, 6일 간 시청을 점거했던 무지개 농성 이후, 2015년은 보다 단단하고 확장된 성소수자인권운동을 모색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또, LGBT 인권포럼은 이를 위한 첫 단추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귀 학과의 연대를 요청드리면서 연세대학교 내에서 인권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제7회 LGBT인권포럼의 공동주최를 수락해 주신다면, LGBT인권포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성소수자 공론장의 지위를 확보하는 데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성소수자인권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펼칠 수 있는 학제-운동의 연계와 연대를 모색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1. LGBT 인권포럼 소개

(주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단체소재:서울)

(시작) 2006년 1회 LGBT인권포럼 "성소수자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꿈꾸며"

(목적) LGBT인권운동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공론장 마련

(내용) ① 성소수자인권운동의 현안과 향후 과제에 대해 토론

②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정보와 교육 기회 제공

③ 인권단체 및 활동가와 연구자, 법정책 전문가 네트워킹

2. 2015년, 제7회 LGBT인권포럼 개요

(가제) 혐오에 도전하는 LGBT인권운동과 시민사회연대

(주제) 반동성애보수운동의 조직화와 한국사회에서의 혐오 선동 대응 전략과 연대 형성

(일시) 3월 14-15 또는 21-22 양일 간, 토요일 오전11시-오후6시

(규모) 진행자 30여명, 참가자 2-300명 / 대형강의실 2개, 중강의실 3개

(진행) 전체(주제)토론, 분과토론 10-20여개 소주제 4-5개 섹션 - 기하중

(부대행사) 행사장 내 단체 홍보 부스 및 포스터 발표 (10-20개)

(프로그램) 참조: 2014년 제6회 LGBT인권포럼 프로그램 (장소: 서강대학교)

● 워크숍 ■ 토론 ◆ 연구발표

	첫째날	둘째날
섹션1 11:00 -12:50	■ "굿바이 바이? 기존 고 출?" I 한국레즈비언상담소	● 20개 키워드로 이야기해보는 가족구성권 운동 I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 당신의 경력, 성소수자 생애 연구 발표 I 동성애자인권연대HIV/AIDS 인권팀, Team DAY	● "우리... 친구 할래?" 성소수자 운동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법 I 무지개행동 이반스쿨
	● 지속가능한 퀴어 연구? I 포스트식민주의퀴어연구회	● 대학생성소수자모임 : 동고 돌아 다시 연대 I 대학생성소수자모임연대 QUV
섹션2 14:00 -15:50	◆ 최신퀴어연구동향 I 정현희, 정미슬, 한빛나, 윤영수	■ 동성결혼, 냉정과 열정 사이 I 연니네트워크+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 한국에서 성소수자로 나이 든다는 것 I 동성애자인권연대 웹진팀	◆ LGBT 건강, 지금 우리는 어디에 I 고려대학교 무지개동성팀
	● 내가 사는 그 집: 대학 성소수자들의 공간 부족과 그 의미 I 반대소년하늘을날다	● 무지개 깃발은 왜 거리로 나가는가 I 동성애자인권연대
전체토론 16:10 -18:00	성소수자 운동 20년, 153에서 LTE 까지	2014 혐오에 맞서는 법 -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것

3. [단체소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tact.org

2007년 말,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내 성적 지향 및 11가지 차별금지 사유 삭제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성소수자차별저지간담행동>을 이어받아, 2008년 5월 17일 발족한 성소수자 단체 및 활동가 연대체입니다. 무지개행동은 ① 개별 성소수자 인권단체만으로 포괄되기 어려운 다양한 사안들을 적절하게 공동 대응합니다. ② 개별 성소수자 인권 단체 및 성소수자 인권운동 각 영역 간에 긴밀히 교류, 논의하고 소통을 확산시킵니다. ③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연대 범위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제를 발전시켜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집속면을 넓힙니다.

• 함께하는 단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방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반대,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트워크, 이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자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교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2